“운동선수 이후를 위해 학업은 필수죠”

동아수영 2관왕 서울대생 양준혁

초등학생 때부터 서울대 체교과 목표
고교시절 3시간 자며 수능 준비 병행
영어실력 쌓으려 해외유학도 다녀와
후배들에게 공부하는 선수 모범 보여

제86회 동아수영대회에서 남대부 자유형 2관왕에 오른 양준혁(서울대)은 ‘공부하는 태극전사’의 전형이다. 울산 | 전영희 기자

1948런던올림픽과 1952헬싱키올림픽 남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계 미국인 새미 리(94)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땄다. 운동선수로서도 존경을 받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도 명성을 떨쳤다. 만약 그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공부하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최근 국내체육계에선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 문제가 화두다. 28일 울산에서 막을 내린 제86회 동아수영대회에서도 ‘학업과 운동의 병행’에 대해 고민하는 선수가 있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2학년 양준혁(20)이 그 주인공이다.

●‘공부하는 선수’ 목표로 아일랜드 조기 유학

양준혁은 25일 남대부 자유형 200m에서 1분51초07로 우승한 데 이어 26일 남대부 자유형 100m에서도 50초83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2관왕의 영예를 누린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소문난 유망주였다. 그러나 학업의 끈도 놓지 않았다.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기계’가 되진 않겠다고 다짐하며 서울대 체교과를 목표로 삼았다. 부모도 적극적으로 아들의 꿈을 후원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아일랜드로 유학을 떠났다. 영어 실력만이라도 확실히 쌓아주자는 취지였다. 일부러 외국인학교 대신 현지학교를 택했다. 그곳에서 26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양준혁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됐는데, 처음 몇 달 동안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힘들었다. 하지만 정확히 6개월이 흐르니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태릉의 공부벌레, 태극마크 달고 주경야독

양준혁은 경기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0년 5월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러나 대표팀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새벽 4시30분 기상해 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밤 9시가 되는 날도 있었다. 이 때부터 내신과 수능시험 공부를 시작하면 새벽 1시를 훌쩍 넘기곤 했다. 3시간밖에 못자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니 컨디션이 좋을 리 없었다. 기록은 정체됐고, 결국 이듬해 9월 이후에는 대표팀의 호출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양준혁은 “어차피 운동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부와 함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부하는 선수의 롤 모델

양준혁은 수시전형으로 2013년 서울대 체교과에 입학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점수는 100점 만점에 94점. 당당히 1등급이었다. 이번 대회는 공교롭게도 중간고사 기간과 겹쳤다. 개막 전날인 23일에는 기계체조 시험을 치르고 울산으로 내려왔고, 폐막 다음 날인 29일에는 운동역학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양준혁은 “최근 1주일간은 운동과 시험공부를 병행하느라 새벽 4시 이전에 잔 적이 없다”고 말했다. 후배들에게 그는 롤 모델이다. 제86회 동아수영대회 최우수선수 이다린(15·서울체중)은 대학에서 스포츠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꿈이다. 양준혁은 “후배들에게 운동선수 이후를 위해서라도 공부는 필수라는 말을 많이 한다. 나 역시 어렴풋이 교수의 꿈을 꾸고 있다. 7월 대표선발전도 잘 준비해서 인천아시안게임 자유형 100m와 200m에 출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울산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3관왕 이다린 동아수영대회 MVP

대회신기록 35개 수확…성황리 마감

‘한국 배영의 기대주’ 이다린(15·서울체중·사진)이 제86회 동아수영대회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이다린은 28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중부 혼계영 400m 결선에서 임단비, 오수빈, 조현아(이상 서울체중) 등과 호흡을 맞추며 4분24초80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다린은 여중부 배영 50m와 100m에 이어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배영 50m와 100m에선 예·결선에서 모두 대회기록을 세웠다. 이번 대회에서 작성한 대회기록만 총 5개다. 계영 400m와 800m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다린은 SK스포츠단의 수영 꿈나무 발굴·육성 프로젝트의 1호 수혜자다. 1월 중순~3월 초 박태환의 전담지도자인 마이클 볼(호주) 코치의 클럽에서 세계적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는 평이다. SK 관계자는 “(이)다린이는 훈련과정에서도 상대를 이기고자하는 집념이 강하다. 다린이에게 뒤쳐진 호주선수가 볼 코치에게 혼이 나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다린(163cm)은 “초등학교 때 150cm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키가 작아서 ‘신체적 조건 때문에 난 안 되나’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호주 전지훈련을 통해 중요한 것은 키가 아니라 근성과 열정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남들의 편견을 깨보고 싶다”며 눈망울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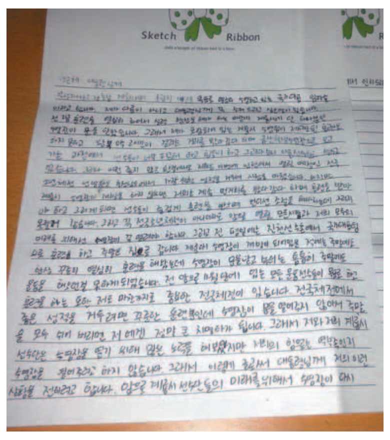
한편 이번 대회에선 총 35개의 대회기록이 쏟아졌다. 황서진(제주시청), 김다산, 김재윤(이상 서울체고), 최보라, 홍세희(이상 경성대)는 5관왕에 올랐다. 울산 | 전영희 기자

경기 결과

●제 86회 동아수영대회(울산문수실내수영장)
•400m 개인혼영 남자 일반부 결승전=① 안영준(강원도수영연맹), ② 김민규(상무), ③ 길병휘(전남수영연맹)
•400m 개인혼영 여자 일반부 결승전=① 김서영(경북도청), ② 정지연(경남체육회)
•400m 개인혼영 남자 대학부 결승전=① 김범규(한체대), ② 김재우(한체대), ③ 김태현(명지대)
•400m 개인혼영 여자 대학부 결승전=① 홍세희(경성대), ② 김사랑(동서울대)
•400m 개인혼영 남자 고등부 결승전=① 오서준(동북고), ② 구기웅(신성고), ③ 배다운(세현고)
•400m 개인혼영 여자 고등부 결승전=① 배지혜(서울체고), ② 고진아(경기체고), ③ 김보민(인천체고)
•400m 혼계영 남자 일반부 결승전=① 상무(경북)
•400m 혼계영 여자 일반부 결승전=① 제주시청(제주), ② 울산시청(울산)
•400m 혼계영 남자 대학부 결승전=① 한체대(서울), ② 동아대(부산), ③ 경성대(부산)
•400m 혼계영 여자 대학부 결승전=① 경성대(부산), ② 동아대(부산)
•400m 혼계영 남자 고등부 결승전=① 서울체고(서울), ② 충남체고(충남), ③ 인천체고(인천)
•400m 혼계영 여자 고등부 결승전=① 서울체고(서울), ② 인천체고(인천), ③ 안남고(인천)
•솔로 싱크로나이즈 여자 대학부 결승전=① 엄지완(연세대), ② 권미호(한체대), ③ 허수경(한체대)
•솔로 싱크로나이즈 여자 고등부 결승전=① 공도연(정신여고), ② 정영희(정신여고), ③ 유소영(백석고)
•듀엣 싱크로나이즈 여자 고등부 결승전=① 정영희(정신여고)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여자배영 200m 1인자 임다솔 장문의 편지
충남 계룡지역 학생들 훈련공간 잃어 한숨



“박근혜 대통령님, 제발 운동할 곳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요.”

제86회 동아수영대회 첫날 경기가 열렸던 24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 여자 배영 200m 한국기록(2분12초03) 보유자 임다솔(16·계룡고)은 여고부 배영 200m 결선에서 2분14초72로 우승했다. 그러나 1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최근 충남 계룡 지역 학생선수들의 훈련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임다솔은 용기를 내 대통령에게 편지(사진)를 썼다. 아직 편지를 부치지는 못했다.

계룡시의 초·중·고선수는 국가대표 임다솔까지 총 27명. 이들은 3월초까지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관리하는 계룡대수영장에서 훈련했다. 계룡대수영장은 계룡시에서 유일한 훈련공간이었다. 그러나 3월 14일 수영장 내 닥트(공기배출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계룡대는 외부업체에 추가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3개월의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장 운영은 전면 중단됐다. 현재 선수들은 왕복 2시간 거리의 금산으로 이동해 훈련하고 있다.

계룡시 수영 관계자는 28일 “닥트가 떨어지기 전부터 조짐이 있어 군부대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떨어져 다행이었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정밀진단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훈련공간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탄식했다. 이에 대해 계룡대 정훈공보실 관계자는 “수영장 관리자에게 확인한 결과, 닥트가 낙하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계룡대 수영장은 훈련시설이 아니라, 본래 군부대 장병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다”고 설명했다.

매일 왕복 2시간의 장거리 원정을 하다보니, 훈련 효율은 현저히 떨어져있다. 임다솔은 “평일엔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지만, 주말엔 집으로 간다. 계룡대 수영장이 개방돼 있을 때는 주말에도 꾸준히 운동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처지다. 그래도 난 주중엔 진천선수촌에 있지만, 후배들은 어떤가. 그 어린아이들도 다 꿈이 있는데…. 너무 피곤해하다보니 아픈 선수도 늘었다. 다른 어떤 지원보다 지금은 수영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도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울산 | 전영희 기자

여자프로농구 귀화 선수도 외국인선수 기준 적용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8일 “우수인재 특별귀화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따른 후속 절차 및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귀화를 추진 중인 앰버 해리스(미국)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국내프로리그에선 외국인선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팀당 2명 보유에 1명 출전으로 제한된 WKBL 외국인선수 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해리스를 제외한 1명의 외국인선수만 선발할 수 있다.

총재 추대 원칙 준수·샐러리캡 현실화…KOVO 이사회에 쏠린 눈

〈한국배구연맹〉

김종건 전문기자의 V리그 레이더

낙하산 인사 배제하고 민선총재 원칙 지켜야
샐러리캡 또 동결 땐 탈법과 꼼수 양산 우려

한국배구연맹(KOVO)이 29일 제10기 제6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V리그 미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결정과 선택이 나올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3가지다.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집행부 선임 ▲2014시즌 샐러리캡 ▲2014시즌 컵대회 등이다.

●구자준 총재의 사퇴 표명…재추대 땐 연임 의사

제3대 구자준 총재는 이번 이사회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연임을 했던 제2대 이동호 총재가 2011년 10월18일 이사회에서 사퇴한 뒤 10개월간 총재 공백상태가 있었다. KOVO 이사회는 2012년 7월25일 총재 추대위원회를 구성해 구 총재를 추대했고 10월11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됐다. 전임 총재의 잔여임기(약 1년6개월)를 수행중인 구 총재는 KOVO 정관 제3장 제13조 ‘임원의 선출’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6월30일) 2개월 전에 사퇴의사를 밝힌다.

공은 이사회로 넘어갔다. 구 총재 재임기간 결정했던 많은 일의 공과를 판단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3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연임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총재를 선택할 수도 있다. 구 총재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추대할 경우 연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의 연속성을 원하는 KOVO의 최선의 시나리오다.

●정치권 인사 총재 추대설의 진상

이사회를 앞두고 최근 민감한 소문이 떠돈다. 소문의 내용은 이렇다. 일부 언론인과 은퇴 배구인 등이 새 총재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수도권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 중인 K씨를 총재로 추대하려고 한다. 일종의 외부인사 영입이다. K씨는 공기업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남자 제8구단이나 여자 제7구단을 만든다는 공약을 새로운 총재추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사실 여부는 29일 이사회에서 드러날 것이다. 배구계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능력 있는 사람을 모시는 것이야 두 손을 들어 찬성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칙과 절차다.

V리그는 몇 년 전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해 어려움을 겪었다. 전임 총재나 총장이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불행한 일을 겪었다.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2012년 9월14일 이사회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각 구단이 돌아가면서 총재와 집행부를 맡는 것이었다.

●왜 민선총재인가

민선총재 원칙을 정한 이유는 정치인 출신 등 외부인을 총재로 영입하다보니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치인 총재의 전문성 부족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그릇된 판단이었다. 많은 원칙이 훼손됐다. 그것은 지금도 KOVO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정치인은 스포츠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사랑해서 뛰어들기보다는 자신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속성이 크다.

신생구단 창단도 명분은 좋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임 이동호 총재 때도 신생구단 드림식스를 만들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사라질 뻔했다.

중요한 것은 창단이 아니다. 영구히 존속할 팀이다. 총재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새로운 팀을 만들어놓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면 결코 배구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정대로 총재는 총재추대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사들의 모임인 추대위원회에서 총재를 원하는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보고 V리그를 위한 비전을 들어본 뒤 총재를 추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공개적으로 거쳐야 V리그가 올바르게 나간다. 개인의 이해나 불순한 목적이 앞선 몇몇 사람이 음지에서 결정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샐러리캡의 문제는 무엇?

이번 이사회에서는 남녀부 샐러리캡 문제도 다뤄진다. 여자는 실무위원회에서 1억 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사회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 2시즌 만에 여자선수들의 몸값은 12억원으로 오른다. 남자는 2012∼2013시즌 20억원에서 변동이 없다.

21일 실무위원회에서 샐러리캡 인상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2대5로 부결됐다. 삼성화재와 대항항공만이 인상에 찬성했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선 남녀선수 간 형평성이다. 동결된 샐러리캡에 불만도 크다. KOVO는 각 구단에 많은 아마추어선수를 뽑아달라고 요청해 엔트리도 2명 늘어났지만 샐러리캡은 변하지 않았다. 이미 몇몇 구단은 소진율이 99%다. 있는 선수도 내쳐야 한다. 비주전과 아직 가능성만 있는 선수부터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한계상황이라면 남자구단은 유소년 육성과 배구 꿈나무 발굴 같은 사업에 돈을 쓸 명분도, 여력도 사라진다.

샐러리캡 인상에 반대하는 구단과 KOVO는 “주전 선수를 포기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구단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구단운영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지키지도 못할 것을 강요하면 편법이 나온다. 연봉을 실제보다 적게 쓰는 다운계약서가 많은 이유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확인하면 누가 어떤 구단이 위법행위를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선수를 광고에 출연시키는 것은 샐러리캡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실제로 선수들에게 많은 연봉을 주면서 샐러리캡을 유지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앞서가는 구단을 끌어내서 하향평준화하려는 KOVO의 행정과 결정은 이처럼 탈법과 꼼수를 양산한다.

차라리 각 구단이 마음껏 돈을 쓰게 하고 그 비율만큼 유소년 발전기금을 내게 만드는 소프트캡 제도를 도입하거나 샐러리캡 상한선을 현실화해 프로배구가 실제로 선수들에게 쓴 돈이 얼마인지 공개하는 것이 더 낫다. 모든 부조리는 음지에서 생긴다.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편집 | 박재윤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